

## 2025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표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 준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관통하며  
대조를 이루는 두 노선을 형성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가 성취되도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화평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표현과 그분의 승리의 전시를 위해  
사탄을 우리의 밑아래 짓밟히게 하신다.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에 관한 것이다.  
이 영은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2025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 성경의 핵심

메시지 1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

성경: 롬 5:10, 12, 14, 17-18, 21, 6:4, 9, 16, 21-23, 7:5, 10, 13, 24, 8:2, 6, 10-11, 38

I.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보여 준다.

- A.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핵심 단어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생명(롬 5:10, 17-18, 21, 6:4, 22-23, 7:10, 8:2, 6, 10-11, 38)과 죽음(5:12, 14, 17, 21, 6:9, 16, 21, 23, 7:5, 10, 13, 24, 8:2, 6, 10-11, 38)은 5장부터 8장까지를 관통하며 대조를 이루는 두 노선, 즉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을 형성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 준다.
- B.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죽음나무)에서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이 나오는데, 이 두 노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난다. 생명은 생명나무(창 2:9)로 시작하여, 생명수 및 생명나무(계 22:1-2)와 생명의 빛(21:23, 22:5)과 생명의 영광(21:10-11, 23)을 지닌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끝난다. 죽음은 지식나무로 시작하여(창 2:17) 불 뜻으로 끝난다(계 20:10, 14).
- C.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창 2:9, 16, 계 2:7).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 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그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 D.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잊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계 2:4-7.
- E.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을 유품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이겼음을 의미한다 — 골 1:18하, 요 14:21, 23, 시 90:1, 91:1, 빌 3:13-14.
- F.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알파벳 엘(L)로 시작하는 네 가지 핵심 단어인 사랑(lo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방면과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께 유품의 위치를 드려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 분을 누릴 것이며, 이 생명은 즉시 생명의 빛이 된다(요 8:12).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빛날 것이고 단체적으로 등잔대로서 빛날 것이다(계 2:1-7).
- G.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비교 사 55:1-2, 6-7, 57:20-21).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렘 2:13).

II. 오늘날 믿는 이는 에덴동산의 축소판이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로서 믿는 이의 영 안에 계시고, 사탄은 지식나무로서 믿는 이의 육체 안에 있으며, 믿는 이의 생각은 그 사이에 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제삼의 장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한다 — 롬 8:6.

- A. 사람의 몸은 본래 순수했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 자신을 사람 안에 주입하여 사람의 몸을 육체가 되게 했다 — 창 3:6, 롬 7:18상.
1. 우리의 몸은 ‘죄의 몸’(롬 6:6)이자 ‘이 죽음의 몸’(7:24)이다. 죄의 몸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에는 매우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지만, 이 죽음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약하고 능력이 없다(7:18).
  2.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죄와 죽음의 몸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 비교 롬 8:23.
  3.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 장소’이자 복합체이다. 육체는 전혀 가망이 없으며 결코 개선될 수 없다 — 롬 7:17-18, 21, 비교 요 17:15.
-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죄악되고 추악한 육체를 사용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그분의 건축물을 위해 그 영을 더욱더 얻게 된다 — 골 2:19, 속 4:6.
1. 법리적으로 말해서 사탄과 우리의 육체는 모두 십자가에서 한 번 만에 영원히 유죄판결 받았지만 (롬 8:3, 요 3:14, 히 2:14, 고후 5:21), 하나님은 육체를 우리에게 남겨 두시어 육체가 우리를 도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시고, 육체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도록 하신다(빌 3:3).
  2. 죄악되고 추악한 육체가 주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주님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 롬 7:24-25, 8:2, 6, 13.
  3. 우리의 목표는 거룩함이나 영성이나 승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주님께 더 많이 열리며, 더욱더 기꺼이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린다 — 롬 8:28-29, 앱 5:27.
  4.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면, 육체라는 죄악된 혼합물까지도 주님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영으로 돌이키며,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영을 더 많이 얻는다 — 비교 출 23:23, 29-30, 삫 2:21-3:4.
  5. 우리의 고난과 패배와 실패와 실망은 우리가 육체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육체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우리를 영 안으로 밀어 넣으며, 우리가 필사적으로 영 안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깨어 영 안에 머물게 하는 데에만 유익하다 — 마 26:41, 앱 6:17-18.
  6. 주님은 우리의 승리나 실패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곧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 빌 3:8, 고후 3:17-18, 롬 8:6.

### Ⅲ.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 있고,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로마서 7장에서는 육체 안에 있고, 로마서 8장에서는 영(spirit) 안에 있다. 5장의 아담은 7장의 육체 안에서 체험되고, 6장의 그리스도는 8장의 영(spirit) 안에서 체험된다.

- A.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전이를 갖는데, 이러한 전이는 하나의 사실이고 위치적인 것이다 — 롬 6:3-8.
1. 아담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인들로 조성하는 죄를 물려받았다(롬 5:12상, 19상). 우리는 죽음을 물려받았는데, 이 죽음은 한 면으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에게 왕 노릇 한다(롬 5:12하, 14상, 17상).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죄판결을 물려받았다(롬 5:16중).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와 생명과 의롭게 됨을 선물로 받았고, 결국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린다 — 롬 5:17하, 18하, 21.
- B.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통해(롬 6:6, 갈 2:20)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아담인) 육체에서 나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롬 8:2, 16상, 고전 6:17)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그리스도이신) 그 영 안으로 옮겨지는 실지적이고 체험적인 전이를 갖는다.
- C.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다(요 14:6상, 11:25, 요일 1:2). 그분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요 10:10하). 그분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요 12:24)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의 영의 법(롬 8:2)이신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하)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삼켜져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롬 8:10, 6, 11, 고후 5:4, 요일 5:16, 요 6:63, 행 5:20).

**IV. 생명의 노선에 머물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해야 한다.**  
아래에 있는 ‘리 형제님의 중요한 교통’을 참고하라.

###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 리 형제님의 중요한 교통

“1943년 5월에 나는 … 아주 심한 폐결핵에 걸렸다. … 이 년 반을 병중에 지내면서 나는 생명나무를 보았다. 그 이 년 반 동안 나는 주님의 회복과 그분의 일 안에서 결핍된 것이 바로 생명임을 보았다. 온갖 종류의 어려움은 생명의 결핍에서 온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극도로 뉘우치게 되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많은 죄를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그분께 다루심을 받았다. … 당시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난징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고 많은 이들을 해방했다. 그들은 모두 우리 가운데 있던 형제자매들이었다. 그들은 사 년 전에 상하이 교회의 소요로 인해 여러 해 동안 낙담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그들의 영을 자유롭게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 주님께 감사드린다.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상하이 교회가 치료를 받았다. … 생명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상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초를 놓아 주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1년, 2권, 주님의 회복의 역사와 계시, 8장, 170, 174, 176, 180쪽)

“우리가 실지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가려면 관념을 철저히 전환해야 한다. …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실재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제하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사십 세에 이르렀을 때에야 나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십여 년 동안 들인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어 소모된 것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 많은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그때 읽었던 영적 서적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이전에 일하는 방식이 틀렸을 뿐 아니라 영적인 추구의 길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 나 자신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정중하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말고 과거의 여러분의 추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의 관념이 반드시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는 통제하는 이상을 가져야 한다.”(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이상, 5장, 91–92쪽)

메시지 2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 —**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

성경: 롬 5:1–11

I.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표준에 따라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판결이다. 믿는 이들의 의는 그들 스스로 소유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한 인격 곧 살아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 A.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행 10:4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의 겉옷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히심으로(사 61:10, 루 15:22, 렘 23:6, 속 3:4)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롬 3:24, 26).
- B.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고 그 표준과 일치되며,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 있다 — 롬 5:18.

II.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 롬 5:1–11.

- A.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결과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여섯 가지 놀라운 것, 곧 사랑(롬 5:5)과 은혜(2절)와 화평(1절)과 소망(2절)과 생명(10절)과 영광(2절)으로 구체화된다. 이 절들은 또한 우리의 누림을 위한 삼일 하나님, 곧 성령(롬 5:5)과 그리스도(6절)와 하나님(11절)을 계시한다.
- B.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의 원수들인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롬 5:1, 10–11).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다’(롬 5:5).
  - 1.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의 노선(요 14:6상)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사랑(요일 4:8, 16)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유 20–21).
  - 2. 우리가 불타는 사랑의 영을 가져 오늘날 교회의 하락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기 위해 계속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이다 — 딤후 1:6–7, 4:22.
- C.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다’(롬 5:2).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롬 5:1).
  - 1.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으로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구원을 받도록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 죄 많은 여인(47–48절)에게 주 예수님은 “평안”\* 안으로 가십시오.”(원문 직역)라고 말씀하셨다(50절).

---

\* 영어 단어 ‘peace’는 문맥에 따라 ‘화평’과 ‘평안’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음—역자 주

2. 우리는 의롭게 됨의 문을 통과한 후에 평안의 길을 가야 한다(롬 3:17). 우리가 우리의 영에 관심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고 삶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생 각은 평안이 되어 우리에게 안식과 해방과 밝음과 위로라는 내적 느낌을 준다(롬 8:6).

Ⅲ. 은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과 기쁨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갖는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단련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 것이다’ — 롬 5:3-4, 11.

- A. 환난은 사실상 은혜의 육체 되심이고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다. 환난을 거절하는 것은 은혜, 곧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의 뜻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은혜는 주로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심으로, 우리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과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 고후 12:7-9, 롬 8:28-29.
- B.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낳는다. 단련은 시험받은 특성과 인정받은 가치이다(빌 2:19-22).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다’(살전 2:4)고 말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셨다.
1.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 곧 시험과 고난의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롭다’고 말한다. 제련되지 않은 금은 정결하게 하는 불로 태워질 때 모두가 쉽게 인정할 수 있는 품질을 얻게 된다 — 말 3:3.
  2. 주님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불 같은 시련들을 통해 금 같은 믿음이신 그분을 얻기 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금, 곧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께 참여하여 그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순금 등잔대가 될 수 있다 — 계 3:18, 1:20, 21:18, 23, 벤후 1:4.
  3.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 분량의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처리되지 않아서, 환난과 시험을 겪던 결과로 나온 인정된 자질인 단련이 부족하다. 이 자질은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달콤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한다.
  4.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제게 단련이라는 미덕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단련을 낳는 환경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지만 단련이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를 손상하며 성도들과 하나님의 가족도 곤란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빛과 은사로 성도들을 돋지만, 단련이라는 인정된 자질이 부족하여 그들을 해한다 — 마 24:45-51.
- C. 우리에게는 단련과 함께 소망이 있고(롬 5:4),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랑한다 (2절).
1.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있고 평안 가운데 행하지만, 아직은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인 영광 안에 완전히 있지 않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 고후 4:17.

2.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 베전 5:10, 살전 2:12, 골 1:27, 빌 3:21.
  3. 주님은 그분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시고(히 2:10-11),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고후 3:16-18, 4:6하).
- D.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가 성취되도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유기적인 목표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화평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표현과 그분의 승리의 전시를 위해 사탄을 우리의 발아래 짓밟하게 하신다 — 롬 5:10, 12:5, 16:1, 4-5, 16, 20.

메시지 3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

성경: 롬 6:3–5, 5:17, 갈 3:27

- I.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 롬 6:3.
  - A.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 롬 6:3.
  - B.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
  - C. 우리는 첫 사람인 아담의 영역 안에서 태어났지만(고전 15:45, 47), 침례를 통하여 둘째 사람(고전 15:47)이신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1:30, 갈 3:27).
  - D.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다 — 롬 6:3.
  - E.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
- II.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롬 6:4.
  - A.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롬 6:6),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 B. 자연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먼저 죽고 그다음에 장사된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먼저 장사되고 그다음에 죽는다는 것이다.
  - C. 우리는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 D.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이다.
  - E.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결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 비교요 5:29, 11:24–25, 행 1:22, 2:31.
  - F.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은 신성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 G.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 벨 3:10.
  - H.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하다.
  - I.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 롬 6:4, 5:17.
  - J.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된다 — 롬 12:2, 8:29.
- III.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 롬 6:5.
  - A.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연결 안에서 자라면 한쪽이 다른 한쪽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된다 — 롬 6:5상.
  - B.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 C.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접붙임이다 — 롬 11:24.

- D. 이러한 접붙임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 E.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침례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생명의 새로움이다.
- F.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롬 6:5)는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킨다.
- G. 침례 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가고 있다.
- H.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시다 — 요 11:25.
- I.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 룸 6:4.

#### IV.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 갈 3:27.

- A. 침례에는 네 방면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마 28:19)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갈 3:27)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는 것(롬 6:3)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는 것(고전 12:13)이다.
- B.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받아시킴으로써, 그들이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 룸 8:2, 10.
- C. 침례에는 두 방면, 곧 보이는 방면과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다.
  - 1. 보이는 방면은 물에 의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 행 2:38, 41, 10:44–48.
  - 2.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이 없다면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은 공허하며,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이 없다면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은 추상적이고 실지적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둘 다 필요하다.
- D.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 갈 3:27.
  -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 룸 8:10, 14, 갈 3:26, 4:7.
  - 2.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다 — 갈 3:27.
  - 3.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누린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결이 우리의 온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 룸 12:2.
  - 4.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 이 장을 끝맺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갈 3:27.
  - 5. 바울이 침례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3장에서 다루어진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갈 3:27.
  - 6.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 갈 3:27.
  -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
  - 8. 한 면에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고, 다른 한 면에서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 9.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고, 우리의 옷 곧 우리의 덮개이신 그분을 입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간증할 수 있다 — 갈 3:27.

## 메시지 4 새 남편

성경: 롬 7:2–6

### I. 그리스도는 새 남편이시다 — 롬 7:2–6.

- A. 거듭난 이들인 믿는 이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이시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의 일부이다.
- B.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이시지만, 많은 이들이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 II. 우리의 옛사람, 곧 옛 남편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 A.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두 남편을 보여 준다.
  1. 첫 번째 남편인 옛 남편은 로마서 6장 6절에 언급된 옛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 로마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언급된 두 번째 남편, 곧 새 남편은 그리스도이다.
- B.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곧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인 새 남편에게 연결된다.
- C.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1. 첫 번째는 타락한 옛사람이라는 우리의 옛 신분이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아내라는 본래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남편과 머리로서 독단적인 위치를 취했다.
  2. 두 번째는 우리의 거듭난 새사람이라는 우리의 새 신분이다. 새사람은 본래의 합당한 위치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참된 아내로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머리로 삼는다 — 사 54:5, 고전 11:3.
  3.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 남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4.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한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만 있다. 합당한 신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더 이상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즉,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D. 율법은 옛 남편인 옛사람을 위한 것이자 옛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게 했다.

### III.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남편,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롬 7:4상.

- A. 이러한 연결은 아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이름과 생명과 존재와 유기적인 연결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 고후 11:2.
- B.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 한다 — 앱 5:23.
  1.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종결하고 모든 것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다. 옛사람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다.
- C.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이시다 — 골 3:4.
- D. 어떤 사람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는 또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또 다른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한다.

**IV. 아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 롬 7:4하.**

- A. 우리가 부활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 B.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내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C.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하나님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본다.
- D.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열매로서 산출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따라서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행동은 반드시 살아 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2.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넘쳐흐르시게 하여 하나님을 산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열매로 갖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는다.

**V. 우리는 얹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아내이자 새사람인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 롬 7:6.**

- A.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정의한다 — 롬 19:2.
- B. 이에 따라 율법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규정을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사람을 이끌어 죄를 알게 한다 — 롬 3:20, 4:15, 5:20.
- C.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굴복된다 — 롬 3:19.

**VI. 아내로서 우리는 또한 문자의 낚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 — 롬 7:6.**

- A.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생명의 새로움을 보고, 7장 6절에서는 우리의 봉사를 위한 영의 새로움을 본다.
1. 생명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시됨으로 산출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함을 위한 것이다.
  2. 영의 새로움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산출된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3. 영의 새로움과 생명의 새로움은 둘 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로 온 것이다.
- B. 생명의 새로움과 영의 새로움은 둘 다 그 영과 관련된다.
1. 생명의 새로움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된다 — 고전 15:45하.
  2. ‘영의 새로움’이라는 표현에서 ‘영’은 그 영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거듭난 영을 가리킨다 — 딤후 4:22.
    - a.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 b. 우리의 거듭난 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롭다.
    - c. 우리의 거듭난 영은 새로움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d.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새로움만 있다.
- C. 우리는 새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의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새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메시지 5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경: 롬 8:9–11, 28–29

- I.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 II. 로마서 8장은 교리에 대한 장이 아니라, 체험에 대한 장이다. 이 장은 삼일성의 교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체험 가운데 계신 삼일성에 대해 말한다.
- III.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생활을 위해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 2, 6, 10–11, 26–29절.
- IV. 로마서 8장은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에 관한 것이다. 이 영은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전히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다.
- V.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 롬 8:9상.
  - A. 로마서 8장은 아버지(15절)와 아들(3, 29, 32절)과 영(9, 11, 13–14, 16, 23, 26절)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된 사람들인 우리 안으로 어떻게 분배하시는지(2, 6, 10–11절)를 밝혀 준다. 이러한 분배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만들어(14–15, 19, 23, 29, 17절)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12:4–5).
  - B.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영 안에 있고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다.
  - C.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삼일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에서부터(롬 8:10) 우리 생각으로 대표되는 우리 혼 안으로(6절) 확장되실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생명을 주실 것이다(11절).
- VI.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 롬 8:9하.
  - A.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그분의 영께 달린 문제임을 보여 준다.
  - B.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고 그분께 속할 길이 없을 것이다.
  - C.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고후 3:17),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딤후 4:22) 우리와 한 영이시다(고전 6:17).
  - D.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두 영이 아니라 한 영이시다.
  - E. 바울은 이 명칭들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 F.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과 그 영과 그리스도가 모두 언급되어 있다.
  - G. 우리 안에는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곧 삼일 하나님의 삼일의 영께서 계신다 — 요 4:24, 고후 3:17, 롬 8:11.

VII.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 롬 8:10.

- A.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가 로마서에서 핵심 요점이다.
  - 1.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계신다.
  - 2. 로마서 4장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
  - 3.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 4.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시다.
- B.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안의 우리 영은 죽어 있었고, 밖의 우리 몸은 살아 있었다.
- C.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비록 밖의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안의 우리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다.
- D.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우리 몸의 죽어 있는 상태가 드러난다.
- E.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의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면서 생명을 가져오신다. 그러나 사탄은 죄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있으면서 죽음을 가져온다.
- F.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과 함께 사람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었고 무능하게 되었다.
  - 1. 비록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셨지만(롬 8:3), 이 죄는 타락한 사람의 몸에서 근절되거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 2. 그러므로 우리 몸은 여전히 죽어 있다.
- G.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사람의 타락한 몸과 대조되는 거듭난 사람의 영이다.
- H. 영이 의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 I. 우리의 영은 거듭나 살아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 1.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신성한 생명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연합되셨다.
  - 2. 따라서 이 두 영은 한 영이 되었다 — 고전 6:17.
- J.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는 의를 받았다. 이 의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곧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롬 8:10.
  - 1. 이 의는 생명을 가져온다 — 롬 5:18, 21.
  - 2. 이제 우리의 영은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이다.

VIII.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롬 8:11.

- A. 이 절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전체,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과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본다.
- B.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둘레까지 곧 우리 온 존재에까지 이른다.
- C.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은 신성한 치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를 가리킨다.
- D. 이런 식으로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 죽어 가는 몸에 생명을 주시어, 이 몸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할기 있게 하신다.